

### “가기도, 타기도 어려워요” 무장애 정류소 효용 의문

시각장애인 ‘버스 노선 음성 안내’ 없어 ‘발동동’  
점자 보도블럭 부족에 저상버스 도입조차 지연  
선택은 ‘콜택시’ 뿐... “장애인 이동 자유 보장을”

#1. “음성 안내 없이 어떤 버스를 타야하죠?”  
전맹 시각장애인 A(43)씨는 정류소에 버스가 여러 대 도착하면 어떤 버스를 타야 할 지 혼란스럽다. 비 시각장애인은 버스 번호를 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버스 번호를 일일이 식별하기 어렵다. A씨는 “‘○○번 버스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없이 버스를 분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 “점자 보도블럭이 끊겨서 정류소까지 못 가요.”  
전맹 시각장애인 B(50)씨는 “점자 보도블럭이 정류소 주변까지 줄곧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점자용 보도블럭이 정류소 안팎 1~2m만 설치돼 있어 정류소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B씨는 “지팡이로 일일이 물체를 접촉하며 감각에만 의존해 정류소를 찾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주로 콜택시를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3. “기사가 휠체어 탄 우리를 못 보고 지나가요.”  
휠체어를 탄 지적 장애인 C(38·여)씨는 휠체어 대기소 인근 가로수나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 탓에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그는 “대기소는 주로 정류장 안쪽에 위치하는데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버스 기사가 (우리를) 못 보고 지나친다. 위험하더라도 차도 주변까지 나와야 탈 수 있다”고 했다.

광주시는 현재 장애인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무장애 정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전체 시내버스 정류소 2379곳 중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 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시설물을 개선·정비한 ‘무장애 정류소’는 98곳이다.

무장애 정류소에는 휠체어 대기소와 점자 보도블럭이 설치되고 급경사가 개선된다. 또 장애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변 시설물을 제거한다.

취재진이 지난 23일 광주 시내 무장애 정류소 98곳 중 5개 자치구 35곳을 둘러본 결과, 상당수 정류소는 개선이 시급했다.

버스 도착 안내 음성이 작동하더라도, 동시에 버스 여러 대가 도착하는 경우 ‘특정 번호’를 안내하는 시스템은 모든 정류소에 갖춰지지 않았다. 유동 인구가 많은 조선대학교 공대·금남로 문화전당역 정류소엔 점자 보도블럭이 반경 몇 m만 설치돼 있었다. 운전저수지·전남대병원 본원 앞 정류장 내 휠체어 대기소 주변에선 전봇대·가로수·노점상 등이 눈에 띄었다. 주행 중인 버스 기사가 휠체어 탑승 장애인을 곧바로 확인하긴 어려워 보였다.

광산구 무역회관 정류소 주변 보도블럭은 노면이 매끄럽지 않았고 경사가 심해, 휠체어로는 이동에 불편함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모니터링·시·지자체가 정류소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며 “시각 장애인 음성 안내는 연계할 시스템이



23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무장애정류소 휠체어 대기석 옆에 버스도착정보안내기가 설치돼 있다.

없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장애 정류소 활용도를 높여려면 저상 버스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저상버스 도입 비율은 90%를 달성해야 한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저상버스 400대를 운용한다. 40% 수준에 그친다.

현재 시내버스 999대 중 저상버스는 261대(26%)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노선은 101개 중 35개 뿐이다.

장애인 활동가 고명진 씨는 “저상 버스가 적어 목적지까지 버스 환승과 지하철 이용을 병행해야 한다”며 “저상버스 도입

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관련 대중교통 시설이 열악 또는 부족하다보니, 지체·시각 장애인들은 교통 약자를 위한 ‘새빛콜’ 콜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거주지-정류소-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커 단 번에 이동 가능한 수단은 택시가 유일하다.

광주인권지기 ‘활짝’에서 활동하는 도연 씨는 25일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는 여전하다”며 “장애인 교통 이동 권익을 위해 인도 개선·음성 안내·저상버스 증차 등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 ‘#나도함께41’ 챌린지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도함께41’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 아래 ‘#나도함께41’과 SNS 챌린지로 기획했다. ‘#나도함께41’ 챌린지는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기업, 행정기관 관계자 등 41명이 참여해 촬영하며 릴레이 방식

####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동참

으로 캠페인을 펼친다.

SNS 챌린지는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손가락 약속 사진을 해시태그(#나도함께41) 챌린지 #제41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지역주민 14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중마장애인복지관은 4월 20~30일 약 2주간 SNNC와 함께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심종섭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지원

#### 본인부담금 40~100% 준비 지원

무안군은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그동안 시간당 최대 10,040원이라는 비

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았으나 이번 사업으로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의 40~100%를 준비로 지원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가정은 최대 6,024 원까지만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면 되며,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전혀 지원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구도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서비스 비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선결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다음달 말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용자의 개인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안=이기성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